

현대건설, 베네주엘라 정유 플랜트 수주

현대건설(대표 정수현)은 베네주엘라 국영 석유공사로부터 정유공장 확장 및 설비개선 공사를 수주했다고 6월28일 공시했다.

수주내용은 기존 푸에르토리쿠르스(Puerto La Cruz) 정유공장 확장 및 설비개선 공사(일산 21만배럴 원유 처리)로 계약서상의 총 공사비용은 1조5627억원 상당이고 공사기간은 42개월이다.

<화학저널 2012/06/28>